

2024년 6월 22일 시행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 제1·2차시험
【법원·등기사무직렬】
〈 1교시 〉

문제책형	시험과목	헌법(25문), 국어(25문), 한국사(25문), 영어(25문)
①		

응시자 준수 사항

-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안만을 선택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문제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공 지 사 항

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24. 6. 22.(토)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 : 2024. 6. 24.(월) 12:00 ~ 2024. 6. 26.(수) 17:00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질의응답 / 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24. 7. 3.(수) 12:00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 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scourt.go.kr>)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문 1】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 ㄱ.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ㄴ.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 ㄷ.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이 갱신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ㄹ.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자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문 2】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에 대한 것이므로 더 이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나,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이전에 심판청구된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②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므로, 명령·규칙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생기면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문 3】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방송편성에 관하여 간섭을 금지하고 그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인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법과 다른 법률에 의해 방송 보도에 대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의 통로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지만,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달리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하지 아니하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벌칙 조항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음란표현은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선거운동기간 중 무책임하게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례에 의한 규제가 지역 여건이나 환경 등 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한 이상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조례조항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더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
- ④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국가가 종전의 상황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개선의 효과가 일부의 사람에게는 미치고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들 사이에 일견 차별이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문 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상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과는 달리 중등교육의 단계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느 시점에서 의무교육으로 실시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때에 비로소 헌법상의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물질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아울러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근로기본권을 포함한 모든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거나 교원의 지위를 행정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 아니고,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여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규정할 수 없다.
- ④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말하는 ‘법률’이라 함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이 교육의 물질 기반인 교육제도 이외에도 인적 기반인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그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의 결정에 맡겨두거나 전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만 귀속시킬 수 없을 만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교육본연의 사명을 완수함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 6】알 권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국민들의 회계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
- ③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구 변호사시험법 해당 조항은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한다.
- ④ 표현의 자유는 알 권리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문 7】부담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되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기는 하나, 그 실질이 조세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같은 정도의 엄격한 법률유보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유보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국회가 스스로 수신료금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는 없다.
- ②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사업주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 시설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 ④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대불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은, 대불 재원의 충당 자체가 변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미리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금 부과.징수의 구체적 요건이나 산정기준, 부담금액의 한도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문 8】탄핵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표결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 ②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 ③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④ 탄핵의 결정은 법률의 위헌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과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9】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
- ②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다.
- ③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 ④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여전히 존속한다.

【문10】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어떠한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그 입법재량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 ② 직업의 개념표지 가운데 ‘계속성’과 관련하여서는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띌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 수습직으로서의 활동 등도 포함된다.
- ③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고,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 ④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국가는 직장선택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객관적 보호의무, 즉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문1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보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 ②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타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③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해당 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12】법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법관징계법 해당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대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서 일정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의 일반원칙으로서 대통령령뿐만 아니라 헌법 제95조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헌법에 의하여 위임입법이 용인되는 한계인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④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문14】다음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출국의 자유’와 외국체류 또는 거주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 ②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해당 규정은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③ 공익사업에 있어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 의무를 정하는 규정은 토지소유자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고, 서울광장에 출입하고 통행하는 행위가 그 장소를 중심으로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행위에 속하므로,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통행을 제지하는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문15】재산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 ④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에게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문16】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일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③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입법자에게 부과된다.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문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법상 친생추정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 ②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③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혼인 외 출생자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
- ④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를 모에게만 부과하고, 생부에게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평등원칙에 반한다.

【문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구 정치자금법 해당 조항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소요되는 정치자금에 국회의원에 비해 적고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도 크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당내경선 탈락으로 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④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은, 탈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고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문19】공무담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또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 역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②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해당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한 구 청원경찰법 해당 조항은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당연히 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④ 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예까지 공무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보장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법 해당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문20】종교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 ② 연 2회 실시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행일시를 모두 토요일 일몰 전으로 정하여 특정 종교의 교인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위반하도록 하거나 토요일 응시에 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두 번의 시험 중 적어도 한 번은 토요일이 아닌 날 시행할 수 있는 등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종교시설의 건축행위에 부담을 주므로 이로써 종교적행위의 자유가 제한된다.
- ④ 종교의 자유로부터 종교를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적용의 면제 등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거나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할 국가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문21】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해당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금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지기간 중 실의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의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의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해당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구 형법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④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 시 필요적 집행정지가 아닌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된 형사소송법 해당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8조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법률에 의해 구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보상법에서 형사보상청구의 제척기간을 1년의 단기로 규정하거나,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한 보상의 결정에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것은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③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④ 대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문23】권한쟁의심판청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비록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조항의 문언에 얽매어 곧바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결국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 ② 헌법이 특별히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정당의 해산을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는 등 정당은 공권력의 행사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정당도 일반적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③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교섭단체가 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과 관련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권한쟁의심판에 속하지 아니한다.

【문24】헌법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
- ③ 형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④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단,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문25】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된다.
- ②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이나, 교수나 교수회는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교수나 교수회가 청구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대학의 자율권의 보호영역에는 학사관리 등 전반적인 것으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이 포함되며, 대학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도 포함된다.
- ④ 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3]

(가)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 축(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
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해매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에 / 내 ㉠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
고 무이며 배추를 찢고 있다
또 ㉡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조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별써 ㉢ **어린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니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
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
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
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
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쓰 뽀’와 도연명(陶淵明)과 ‘라이
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나)
우리 집도 아니고 /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 **아버지**의 침상(寢床)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자래운 ㉥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아무을만(灣)의 파선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듯이 벤 채.

다시 뜨시잖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갈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 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停止)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모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 눈빛 미명은 고요히 / 낮을 덮었다.

우리는 머리말에 엮디어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아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문 1】(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문 2】<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일종의 스크린 역할을 하는 ‘흰 바
람벽’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다. ‘흰 바람벽’을 통해 시
인의 추억이 지나가고, 마침내 화자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처
리된다. 그 목소리의 실제 주인공인 화자는 스크린 속에서 펼
쳐지는 ‘나’를 보는 관객이 된다. ‘나’가 스크린을 통해 이렇게
둘로 분리되면서 ‘나’의 성찰은 한층 깊이를 갖게 된다.

- ① ‘이러한 글자들’은 실제로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화자가 관객이 되어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
이’ 지나가는 글자들을 바라보고 있군.
- ③ 화자의 목소리가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지나가는 글자
로 표현되면서 성찰의 깊이가 확보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초생달’,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와의 합일을 통해 화자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냈군.

【문 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 ② ㉢, ㉤ 모두 고국을 떠나 유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
- ③ ㉣, ㉥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④ ㉤, ㉥은 재회를 소망하는 시적 대상이다.

【문 4】<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 한밤중에 그가 나에게 전화 할 줄 몰랐다.
- ㉨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을 테니 선생님만큼만 공부하길 바란다.
- ㉩ 형님께는 햇사과를, 동생에게는 햄살을 선물로 보냈다.

- ① ㉦ :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 된 하나의 단어이다.
- ② ㉧ :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
- ③ ㉨ :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으면 쓰일 수 없고 형식적 의
미만을 나타낸다.
- ④ ㉩ :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
법적인 뜻을 갖는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5~7]

(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타곤 한다. 그런데 노둔하고 아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치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았다.

이곡, <차마설(借馬說)>

(나)

10월 초하루에 이자(李子)가 밖에서 돌아오니, 종들이 흠을 파서 집을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같았다. 이자는 어리석은 체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집 안에다 무덤을 만들었느냐?”

하니, 종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실입니다.”

하기에,

“어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였더니,

“겨울에 화초나 과일을 저장하기에 좋고, 또 길쌈하는 부인들에게 편리하니,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온화한 봄 날씨와 같아서 손이 얼어 터지지 않으므로 참 좋습니다.”

하였다.

이자는 더욱 화를 내며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이 추운 것은 사시(四時)의 정상적인 이치이니,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곧 괴이한 것이다. 옛적 성인이, 겨울에는 털옷을 입고 여름에는 베옷을 입도록

마련하였으니, 그만한 준비가 있으면 족할 것인데, 다시 토실을 만들어서 추위를 더위로 바꿔 놓는다면 이는 하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속에 엎드려 있는 것은 너무 상스럽지 못한 일이다. 길쌈이란 할 시기가 있는 것인데, 하필 겨울에 할 것이냐? 또 봄에 꽃이 피었다가 겨울에 시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인데, 만일 이와 반대가 된다면 이것은 괴이한 물건이다. 괴이한 물건을 길러서 때아닌 구경거리를 삼는다는 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니, 이것은 모두 내가 하고 싶은 뜻이 아니다. 빨리 털어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였더니, 종들이 두려워하여 재빨리 그것을 철거하여 그 재목으로 땔나무를 마련했다. 그리하고 나니 나의 마음이 비로소 편안하였다.

이규보, <괴토실설(壞土室說)>

【문 5】(가)와 (나)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관적인 정서를 함축적인 언어 형식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현재형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③ 실재하는 사실을 들어 이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실 세계를 반영한 갈등을 중심으로 허구적 이야기를 전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문 6】(나)의 이자(李子)가 비판할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댐 건설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 ② 스마트 온실을 활용한 작물 재배 및 수확
- ③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을 통한 지역 내 거래 촉진
- ④ 패시브 하우스 건축을 통한 연중 일정 온도 유지

【문 7】(가)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강산 죠흔 경을 힘센 이 닛돌 양이면
니 힘과 니 분으로 어이혀여 엇들쏜이
진실로 금허리 업쓸씩 나도 두고 논이노라

- 김천택

- ㄱ. (가)의 ‘만방의 임금’과 <보기>의 ‘힘센 이’ 모두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되겠군.
- ㄴ. (가)와 <보기> 모두 설의의 방식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군.
- ㄷ. (가)의 ‘맹자’와 <보기>의 화자 모두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군.
- ㄹ. (가)와 <보기> 모두 독자로 하여금 성찰의 자세를 갖추 것을 독려하고 있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8~10]

1980년대 심리학자들은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그때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테면 ‘SO_P’에서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하라고 하면, 최근에 ‘먹다’라는 단어를 보았거나 들은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SOAP(비누)’ 보다는 ‘SOUP(수프)’란 단어를 떠올리기 쉽다. 반면에 금방 ‘씻다’라는 단어를 본 사람이라면 ‘수프’보다 ‘비누’를 떠올릴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 하고, ‘먹다’라는 말이 ‘수프’ 생각을 점화 또는 촉발했다거나 그 말이 기폭제가 되어 ‘수프’가 떠올랐다고 설명한다.

점화 효과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머릿속에 ‘먹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수프’란 말이 어렴풋이 들리거나 뿌연게 보여도 평소보다 빨리 그 단어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수프 외에도 ‘고기’, ‘배고프다’, ‘다이어트’ 등 음식과 관련된 수많은 단어가 떠오른다. 여기에서 점화된 개념은 정도는 약할지라도 또다시 다른 개념을 점화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는 호수에 물결이 일듯이 거대한 연상망의 한쪽에서 주위로 퍼져나간다. 이 현상은 현재 심리학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다.

기억 연구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점화 효과가 개념이나 단어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인지하지도 못한 사건이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존 바그가 동료들과 실시한 실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2세 사이인 뉴욕대학 학생들에게 단어 다섯 개가 뒤섞인 문장을 주고 거기서 단어 네 개를 뽑아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다. 이때 한 집단에게는 문장 중 절반에 ‘깜빡하다’, ‘대머리’, ‘회색’, ‘주름’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섞어 제시했다. 문제를 다 푼 학생은 복도 끝에 있는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에 참여해야 했다.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이 실험의 핵심이었다. 연구원들은 각 학생이 반대쪽 실험실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다. 바그가 예상한 대로, 노인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문장을 만든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훨씬 느린 걸음으로 다른 실험실로 이동했다.

‘관념운동 효과’로도 알려진 실험 결과는 점화 효과의 두 단계가 나타났다. 첫째, 주어진 단어 조합에는 ‘노인’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는데도 노인에 대한 개념을 점화했다. 둘째, 이런 생각이 행동을 촉발해, 노인처럼 느리게 걸게 했다. 이 모든 결과는 실험 참가자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일어난다. 실험이 끝나고 학생들에게 제시된 단어에 공통된 주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나고 문자 하나같이 몰랐다고 대답하였고, 첫 번째 실험에서 본 단어가 그 뒤의 행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념운동 효과는 거꾸로 나타날 수도 있다. 독일의 어느 대학에서는 뉴욕 대학에서 바그가 했던 실험을 거꾸로 실시했다. 실험에서 학생들은 1분에 30걸음을 걷는 속도로 5분 동안 실험실 안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평소 속도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 짧은 실험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깜빡하다’, ‘늑다’, ‘외롭다’ 등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훨씬 빨리 알아보았다. 점화 효과가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든 모두 일관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문 8】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적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 ② 설명 대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독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되는 해결 방안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논의 대상에 대해 구분되는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어긋나는 반례를 분석하고 있다.

【문 9】윗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 ① 점화 효과는 단어와 관련된 개념만을 활성화시킨다.
- ② 점화 효과는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 ③ 점화 효과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동과 감정을 촉발할 수 있다.
- ④ 점화 효과는 연상망의 확장을 유도함으로써 사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문10】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우리는 투표를 정책에 대한 자신의 평가와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적 행위로 보고, 정책과 무관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표소의 위치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00년 애리조나 선거구에서 투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비율은 학교 안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

- ① 투표소의 위치가 투표 행위를 점화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학교와 관련된 개념이나 단어를 활성화하는 것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관찰할 수 있겠군.
- ③ 의식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실은 인지하지 못한 요인으로부터 촉발된 것일 수 있겠군.
- ④ 학교 재정 지원 증가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투표소 위치가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겠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1~13]

앞부분 줄거리: ‘나’의 친정어머니는 넘어져 크게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받게 되고, ‘나’는 홀로 어머니의 병실을 지키게 된다. 아흔에 가까운 고령의 어머니는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그놈 또 왔다. 뭘하고 있냐! 느이 오래빌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시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디 있다고 숨겨요?”
“그럼 느이 오래빌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다 숨기려는지 몸부림쳤다.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이었다.

“군관 나오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가요. 군관 나오리.”

그러나 절대절명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찌랴. 공포와 아직도 한 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의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십시오, 그 몫쓸 일을 두 번 겪게 하시다니…….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면서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나를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쳤다.

“안된다. 안돼. 이 노움. 안돼.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이 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율아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된다 이 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중략 줄거리: ‘나’는 겨우 어머니를 진정시킨다. 과거 6.25 전쟁에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겨우 탈출하여 돌아온다.

그런데 오빠는 속속들이 망가져 있었다.

전세가 불리해져 피란을 갈 상황에 처한 가족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숨어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닥친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된다.

다시 포성이 가까워지고 그들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앞으서나 그들이 곱게 물러가기만을 촉구했다.

“그저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불쌍한 내 자식 해코지만 마소서.”

마침내 보위군관이 작별하러 왔다. 그의 작별방법은 특이했다.

“내가 동무들같이 간사한 무리들한테 끝까지 속을 것 같소. 지금이라도 바른 대로 대시오. 이래도 바른 소리를 못하겠소?”

그가 허리에 찬 권총을 빼 오빠에게 겨누며 말했다.

“안된다. 안돼. 이 노움 너도 사람이냐? 이 노움.”

어머니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그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짐승 같은 소리로 신음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어머니를 획 뿌리쳤다.

“이래도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총성이 울렸다. 다리였다. 오빠는 으, 으, 으, 으, 같은 소리 밖에 못 냈다.

“좋다. 이래도 바른 말을 안할 테냐? 이래도.”

또 총성이 울렸다. 같은 말과 총성이 서너 번이나 되풀이됐다. 잔혹하게도 그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하체만 겨냥하고 쏘았다.

오빠는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기절해 꼬꾸라지고 어머니도 그가 뿌리쳐 나동그라진 자리에서 처절한 외마디 소리만 지르다가 까무라쳤다.

“죽기 전에 바른말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장 죽이진 않겠다.”

그후 군관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만에 세상은 또 바뀌었다.

오빠의 총상은 다 치명상이 아니었는데도 며칠만에 운명했다. 출혈이 심한데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2> -

【문11】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자신의 심리적 반응과 해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를 장면에 따라 전환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단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12】㉠과 관련해 작품의 구절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머니’가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는 것은, 과거 사건에서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것이군.
- ② ‘어머니’가 환각 속에서 보고 있는 ‘군관’은, 과거 사건에서 ‘오빠’를 해친 존재로군.
- ③ ‘나’가 ‘차라리 죽게 하십시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환각이 매우 고통스러움을 알고 있기 때문이군.
- ④ ‘어머니’가 ‘나’를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과거 ‘나’가 ‘오빠’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군.

【문13】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각을 보는 ‘어머니’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 ② 주삿바늘이 빠져 피가 나면서 ‘어머니’의 이상 행동이 심해졌다.
- ③ ‘보위군관’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집을 찾아왔다.
- ④ ‘오빠’는 총에 맞아 생긴 상처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4~15]

世·생宗중 御·영製·쟁 訓·훈民民正·정음름
나·랏·말·ㅅ·미 ㉠ 中·동國·국·에 달·아 ㉡ 文·문·字·
중·와·로 서르 스·몯·디 아·니·힐·씨
·이런 전·초·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저
㉢ 孝·배 이·셔·도
ㅁ·춤·내 제 ㉣ ㅅ·ㅅ·들 시·러 퍼·디 :몬·흙·노·미
하·니·라
㉤ 內·아·를 爲·왕·하·야 :어·엿·비 너·겨·
새·로 ㉥ ㅅ·스·믈·어·들·字·중·로 밍·?·노·니
:사·름·마·다 :하·여 :수·비 나·겨 :날·로 ㉦ ㅅ·ㅅ·
메 便·편·安·안·키 하·고·저 흙·ㅅ·름·미·니·라

【문14】윗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에서 동일한 비교의 부사격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에는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표시하는 조사가 드러난다.
- ③ ㉢과 ㉣에서 같은 격을 표시하는 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과 ㉥을 통해 체언의 끝소리와 모음 조화에 따라 목적격 조사가 다르게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문15】현대 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음운 변화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런’이 ‘이러’로 바뀌었음을 통해 성조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 ② ‘말·ㅅ·미’가 ‘말·ㅅ·미’로, ‘ㅁ·춤·내’가 ‘마·춤·내’로 바뀌었음을 통해 아래 아(·)가 첫 음절에서는 ‘ㅏ’,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또는 ‘ㅣ’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퍼·디’가 ‘퍼지’로 바뀌었음을 통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화가 적용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몬·흙’이 ‘:몯·흙’로 바뀌었음을 통해 종성의 ‘ㄷ’이 ‘ㅅ’으로 발음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16】<보기>를 참고하여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당하거나 영향을 받는 문장을 피동문이라고 한다. 피동문을 만들 때에는 능동사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되다’ 혹은 ‘-아지다/-어지다’를 사용한다.

< 능동문 >

- ① 내가 웃었다.
- ② 모기가 나를 물었다.
- ③ 정부가 회담을 진행하였다.
- ④ 나는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

< 피동문 >

민수가 나를 웃겼다.

내가 모기에게 물렸다.

회담이 정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

【문17】<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학습 활동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홑문장보다 복잡한 겹문장의 구조를 잘 파악하려면 각 절의 주어와 서술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

형이 저지른 잘못이 빌미가 되었음을 동생이 밝혔다.

○ 학습 활동 수행 결과

문장 전체에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는 3회 나타난다. 먼저 문장 전체의 서술어는 ‘밝혔다’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명사절의 서술어는 ‘되었음’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관형사절의 서술어는 ‘저지른’이고, 이에 해당하는 주어는 (㉢)이다.

- | | ㉠ | ㉡ | ㉢ |
|---|-----|-----|-----|
| ① | 동생이 | 잘못이 | 형이 |
| ② | 동생이 | 빌미가 | 형이 |
| ③ | 형이 | 잘못이 | 빌미가 |
| ④ | 형이 | 빌미가 | 잘못이 |

【문18】<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3절 보조 용언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 ① “그 일은 할 만하다.”는 “그 일은 할만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다.
- ②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비가 올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만이 옳다.
- ③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떠내려가버렸다.”와 같이 적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제47항 다만’에 따르면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는 앞말이 합성 용언이므로 띄어 쓴 경우에 해당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19~21]

지구인들이 만들어 낸 플라스틱 양은 195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약 83억 톤에 이른다. 2020년 유엔환경계획(UNEA)의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한 해 약 200만 톤이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갈수록 증가해 2020년에는 약 4억 톤이 되었다. 이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아서 만들면 만드는 대로 지구에 쌓이고 있다.

심지어 이 플라스틱은 생산되는 순간부터 사라질 때까지 온갖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을 꾸준히 배출해서 더욱 문제가 된다. 특정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높은 열이나 전자레인지에 노출되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다. 안전할 것 같은 종이컵도 안쪽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과불화합물(PFAS)이 검출되기도 한다. 폴리스티렌(PS)으로 만들어진 음료 컵 뚜껑에서는 스타이렌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나와서 많은 나라에서 이를 폴리프로필렌(PP)으로 교체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플라스틱에서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름도 복잡한 온갖 해로운 물질이 쏟아져 나온다.

한편 플라스틱이 마모되어 만들어지는 ㉠ 미세 플라스틱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량과 폐기량을 비교했을 때 오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발견되었다. 리처드 톰슨의 연구 팀에서 나머지 플라스틱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조사한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이 눈에 안 보일 만큼 작은 알갱이로 부서져 바닷속을 떠돌고 있음을 밝혀냈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소금으로 흘러들고, 물고기 먹이가 되어 식탁 위에 올라 우리 입속으로 들어오고, 수증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 비와 눈이 되어 전 지구에 내리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 섬유에서도 만들어진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폴리우레탄, 아크릴 같은 합성 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기에 넣고 빨면 수십만 개의 미세 섬유가 빠져나온다. 너무 작아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미세 섬유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로 흘러든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약 1/3은 미세 섬유 때문이다. 이는 패스트 패션이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패스트 패션은 유행하는 디자인의 옷을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매우 신속하게 제작, 유통, 판매하는 패션 산업을 가리킨다. 누구나 부담 없이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따라 쉽게 사 입고 쉽게 버릴 수 있도록 가격이 저렴한 합성 섬유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플라스틱을 줄이는 것이 지구를 위해 무척 훌륭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빨대가 문제라면 플라스틱 빨대만 금지할 것인지 빨대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금지한다면 기업의 빨대 생산과 유통에 벌금을 물릴 것인지 소비자의 빨대 이용에 벌금을 물릴지, 그렇게 되면 아픈 사람이나 어린아이처럼 빨대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재료로 빨대를 대신한다면 가장 편리하고 저렴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게 무엇인지, 계속 묻고 또 물어야만 한다.

【문19】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015년까지의 누적 플라스틱 양은 최소 약 83억 톤에 달한다.
- ②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③ 저온에 노출되었을 때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플라스틱이 있다.
- ④ 패스트 패션은 빠르게 옷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의류 산업이다.

【문20】㉠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플라스틱 폐기량이 생산량보다 많은 이유에 해당한다.
- ② 사람이 먹는 음식에도 유입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 ③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미세 섬유와도 관련이 있다.
- ④ 합성 섬유의 사용이 늘어나면 그 양이 증가할 수 있다.

【문21】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잘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한다면 환경 호르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폴리프로필렌(PP)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 ③ 바닷물과 달리 눈과 비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지 않을 것이다.
- ④ 환경 오염을 줄이려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 계 속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22~25]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땐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덩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겁니다.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뒷에 이리가 치어 있었습시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짙레 덩굴 밑이던가요…….

나 드디어 붙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내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난 나 혼자만을 와 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뿐.” 그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고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덩이를 보러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중략)

촌장 얘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 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덩들을 보살피고 양철 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얘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 뭐라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고,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고, 양철 북도 두들기고,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내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젠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고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떼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날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고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이리에게 몰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고요?

촌장 ㉦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찌른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얘,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지?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떼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고,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얘,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고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껴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 이강백, <파수꾼>

【문22】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두 개 고르면?

< 보 기 >

- ㄱ.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글이다.
- ㄴ. 장면 전환이 자유롭고 사실적인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 ㄷ.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며 사건이 현재형으로 제시된다.
- ㄹ. 해설자가 작품 내부에서 사건을 관찰하며 관련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문23】윗글을 감상한 학생들이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촌장’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② ㉡: ‘운반인’에 대한 ‘촌장’의 못마땅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 ③ ㉢: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촌장’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군.
- ④ ㉤: ‘촌장’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성격을 행동을 통해 관객에게 보여 주고 있군.

【문24】㉠~㉤에서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실을 밝히지 않을 경우 얻게 될 대가를 제시하며 회유하고 있다.
- ② ㉡: 개인에게 생길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상대의 실천 의지를 꺾고 있다.
- ③ ㉢: 끔찍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의 불안감과 동정심을 자극하고 있다.
- ④ ㉤: 시간을 벌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타협하고 있다.

【문25】<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일삼던 지배 권력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위선적인 독재 권력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는 체제를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가상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 주었다. 이러한 통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진실은 철저히 은폐되어야 했고 진실을 알 수 없게 소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진실을 말하는 개인, 언론이나 단체들을 탄압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실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였다.

- ① ‘이리떼’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상의 적’이며 ‘촌장’에게는 사회 통제의 수단이 되는군.
- ② ‘파수꾼 다’는 ‘가상의 적’이 실제 없는 허상임을 알지만 ‘흰구름’의 진실을 혼자만 알기를 원하는군.
- ③ ‘촌장’은 체제 유지를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명분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의 단결과 질서를 내세우고 있군.
- ④ ‘망루’는 위와 아래로 분할되어 망루 아래에서는 진실을 알 수 없게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는 권력의 기제 역할을 하는군.

【문 1】(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 ① 태조왕이 옥저를 복속하였다.
- ② 진흥왕이 화랑도를 개편하였다.
- ③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④ 지증왕이 국호를 '신라'로 정하였다.

【문 2】(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 건국강령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같은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 이는 사회 각 계급·계층이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전유지 하라고 한 것이니, 홍익인간과 이화세계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켜야 할 최고의 공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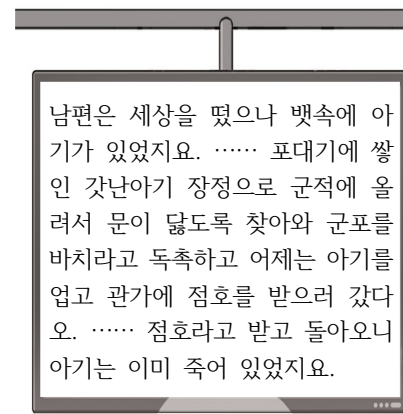
- ① 충청에서 정규군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 ② 1941년 일제에 대일 선전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③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
- ④ 민족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 인사가 합류하였다.

【문 3】(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명군 도독 이여송이 대병력의 관군을 거느리고 곧바로 평양성 밖에 다다라 제장에게 부서를 나누어 본성을 포위하였습니다. ... 조선의 장군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매복하고 함께 대로로 나아가니 왜적들은 사방으로 도망가다가 북병의 요격을 입었습니다.
- (나) 화의가 나라를 망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러하였으나 오늘날처럼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명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나라이고 노적은 우리나라에는 부모의 원수입니다. ...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 ①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은 후금에 항복하였다.
- ② 신립 장군은 충주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였다.
- ③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
- ④ 조선은 왜구의 약탈을 근절하고자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문 4】밑줄 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시에서 나타난 조세 제도를 감면한 뒤 발생한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 ② 풍흉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조세를 거두었다.
- ③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군관포를 내게 하였다.
- ④ 토지 소유자에게 공납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하였다.

【문 5】(가) 시기에 해당하는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노비를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옳고 그름을 따져 밝혀내도록 명하였다.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이 이루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로 말미암아 상전을 능멸하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고 원망하므로 왕비가 간절하게 간언하였으나, 왕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가을 7월, 교(敎)하기를, “양민이 된 노비들은 해가 점차 멀어지면 반드시 그 본래의 주인을 가벼이 보고 업신여기게 된다. ... 만약 그 주인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 천민으로 되돌려 부리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강조가 정변을 일으켰다.
- ② 거란이 개경을 점령하였다.
- ③ 전시과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 ④ 공신들에게 역분전이 지급되었다.

【문 6】(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김해·고령 등 (가) 고분군 7곳,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됐다.

유네스코 “고대 문명의 주요 증거” 한반도 남부에 남아 있는 유적 7곳을 묶은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 됐다. ... (가) 은/는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주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번성한 작은 나라들의 총칭이다.

- 2023. 9. 18. □□ 일보 -

- ①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 성장하였다.
- ② 철기를 활발히 생산하여 주변국에 수출하였다.
- ③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 ④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전기 가야 연맹이 결성되었다.

【문 7】(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봉화백(奉化伯) 정도전·의성군(宜城君) 남은과 부성군(富城君) 심효생(沈孝生) 등이 여러 왕자들을 해치려 꾀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형벌에 복종하여 참형을 당하였다.
- (나) 상왕이 말하기를, “만일 물리치지 못하고 항상 침노만 받는다면, 한(漢)나라가 흉노에게 욕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 구주(九州)에서 온 왜인만은 구류하여 경동하는 일이 없게 하라. 또 우리가 약한 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하니, 후일의 환이 어찌 다함이 있으랴.” 하고, 곧 이종무를 삼군 도체찰사로 명하여, 중군을 거느리게 하였다.

- ① 경연이 폐지되었다.
② 홍문관이 설치되었다.
③ 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다.
④ 위화도 회군이 단행되었다.

【문 8】(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에는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서 세력이 강대한 사람은 스스로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하였다. …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삼국지』「위서 동이전」-

- ① 무천이라는 제천행사가 있었다.
② 화백회의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였다.
③ 여러 개의 소국으로 구성된 연맹체였다.
④ 사출도라 불리는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다.

【문 9】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었으니, 노객은 백성된 자로서 왕에게 귀의하여 본부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 10년(400)에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② 마한을 병합하고 평양을 공격하였다.
③ 마립간이라는 왕호를 처음 사용하였다.
④ 요동을 포함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문 10】(가), (나)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효종의 사망과 관련하여 인조의 계비 자의대비의 복제(服制)가 쟁점이 되었다. (가)은/는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근거를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같은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나)은/는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가) - 인조반정으로 몰락하였다.
② (가) - 경신환국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③ (나) -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었다.
④ (나) - 송시열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였다.

【문 11】(가)~(다)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났다.
(나) 이승훈이 최창현·홍낙민 등과 함께 서소문 밖에서 참수되었다.
(다) 윤지충과 권상연을 사형에 처하고, 진산군(珍山郡)은 현(縣)으로 강등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다) - (가) - (나)
④ (다) - (나) - (가)

【문 12】(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조선은 김기수와 김홍집을 수신사로 (가)에 파견하였다. (나)에는 김윤식을 영선사로 삼아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우는 유학생을 보냈다. 또한 조선은 민영익 등을 보빙사로 (다)에 파견하였다.

- ① (가) -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하였다.
② (나) -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③ (다) -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④ (가)와 (나) -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

【문 13】다음 정책과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신라 왕 김부가 항복해 오니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의 사심관이 되게 하였다.

- ① 기인제도
② 복진정책
③ 정혜쌍수
④ 독서삼품과

【문 14】(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고려 시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을 합쳐서 불렀다. 이들은 (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사 용어 사전」-

- ①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② 중추원의 추밀과 함께 법제와 격식 제정
③ 관원 임명시 동의 여부에 서명할 수 있는 서경
④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문 15】(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가)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나) 고부에서 만석보가 허물어졌다.
(다) 청과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① (가) - (나) - (다)
② (가) - (다) - (나)
③ (나) - (다) - (가)
④ (나) - (가) - (다)

【문16】(가)~(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가)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 (나) 의천이 불전과 경서 1,000권을 바치고, 또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둘 수 있기를 아뢰었다. 요와 송에서 책을 사들여 4,000권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 죄다 간행하였으며, 천태종을 처음 열어 국청사에 두었다.
- (다)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색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

- ① (가) - (나) - (다)
② (나) - (가) - (다)
③ (나) - (다) - (가)
④ (다) - (나) - (가)

【문17】(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은/는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 ... 무리를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계루부의 옛 땅을 차지하고 동모산에 성을 쌓고 살았다.
-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게 되니 김씨가 그 남쪽 땅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 땅을 차지하여 라 하였다. 이것을 남북국이라 한다.

< 보 기 >

- ㄱ. (가)은/는 고구려의 왕족 출신이다.
ㄴ. (가)은/는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였다.
ㄷ. (나)은/는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ㄹ. (나)의 군사제도로 9서당 10정이 있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ㄴ, ㄹ

【문18】밑줄 친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州)·군(郡)에서 공물과 조세를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어 나라의 썩썩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다.

< 보 기 >

- ㄱ. 적고적의 난이 발생하였다.
ㄴ. 김헌창의 반란이 진압되었다.
ㄷ. 만적이 신분 해방을 주장하였다.
ㄹ. 원종과 애노가 사별주에서 봉기하였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문19】밑줄 친 ‘후(煦)’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후(煦)는 문종의 넷째 아들이자 송나라 황제와 이름이 같으므로 그것을 피하여 자(字)로 행세하였다. 문종이 여러 아들에게,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의 이익을 짓겠느냐?”라고 물으니 후(煦)가, “상(上)의 명령대로 하겠다.” 하고, 출가하여 영통사(靈通寺)에 거처하였다. 그는 송나라에 들어가 법을 구하려 했으나 문종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煦)는 송나라로 들어가 황제를 만나 여러 절을 다니며 법을 묻겠다고 하였다.

- ①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②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③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④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문20】(가)~(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가) 삼가 말하건대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에 가깝지만 무력을 동원하여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리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 (나) 정족 산성 수성장 양현수가 ... 우리 군사들이 좌우에 매복했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 저들은 죽은 자가 6명이요 아군은 죽은 자가 1명입니다.
- (다) 흉악한 적들을 무찌르다가 수많은 총알을 고슴도치의 털처럼 맞아서 순직하였으니 ... 죽은 진무중군 여재연에게 특별히 병조 판서와 지삼군부사의 관직을 내리노라.
- (라)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의 각 항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과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라) - (나)
③ (나) - (가) - (다) - (라)
④ (나) - (다) - (라) - (가)

【문21】(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가) 대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병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 (나) 한국 정부는 금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다)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및 경제상의 특수한 이익을 갖는다는 것을 승인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도, 보호 및 감리의 조치에 대해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 ① (가) 조약 체결로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② (나) 조약 체결로 청과 일본간의 간도협약이 체결되었다.
③ (다) 조약 이후 일본은 독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④ (가)-(다)-(나) 순서로 조약이 체결되었다.

【문22】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된 회사가 한국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조선 밖에서 설립되어 조선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선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립하여야 한다.

- ① 국민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의 모습
② 대한 광복회를 체포하려는 헌병 경찰의 모습
③ 치안유지법에 의해 구금되는 독립운동가의 모습
④ 농촌 진흥 운동을 홍보하는 조선 총독부 직원의 모습

【문23】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평서 대원수는 급히 격문을 띄우노니 관서 지역의 부로자제와 공사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으라. ... 조정에서는 관서 지역을 썩은 흙과 같이 버렸다. 심지어 권세 있는 집의 노비들도 서토 사람만 보면 반드시 '평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은 자 있겠는가. ... 이제 격문을 띄워 먼저 여러 고을의 군후에게 알리노니,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 ① 왕실과 훈인을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② 유득공 등 서열들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임용하였다.
③ 대동법을 처음 실시하여 공납을 토지 기준으로 걷었다.
④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철폐하였다.

【문24】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지영이 장군이 되었다. 그가 최충수 집의 비둘기를 빼앗았는데, 최충수가 화가 나서 그 형인 ㉠ 최충헌에게 그 사실을 아뢰고 ㉡ 의의민 부자를 죽이자고 하니, 최충헌이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의의민이 미타산 별장에 갔을 때, 최충헌 등이 가서 그를 죽이고 머리를 저자에 내걸었다. 당시 이지순은 대장군이었고, 이지광은 장군이었는데, 변란의 소식을 듣고 가동을 이끌고 길에서 싸웠다. - 「고려사」-

- ① ㉠ -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였다.
② ㉠ -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③ ㉡ - 개혁안 봉사 10조를 올렸다.
④ ㉡ - 정방을 통해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문25】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왕은 현릉원(顯隆園)을 수원에 봉안하고 1년에 한 번씩 참배할 준비를 하였다. 옛 규례에는 한강을 건널 때 용배[龍舟]를 사용하였으나, 그 방법이 불편한 점이 많다 하여 배다리의 제도로 개정하고 묘당으로 하여금 그 세목을 만들어 올리게 하였다. 그러나 뜻에 맞지 않았기에 국왕은 주교지남(舟橋指南)을 편찬하였다.

- ① 탕평비를 세웠다.
②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③ 무예도보통지를 간행하였다.
④ 초계문신 제도를 시행하였다.

【문 1】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w we stand at the edge of a turning point as we face the rise of a coming wave of technology that includes both advanced AI and biotechnology. Never before have we witnessed technologies with such transformative potential, promising to reshape our world in ways that are both awe-inspiring and daunting.

- (A) With AI, we could create systems that are beyond our control and find ourselves at the mercy of algorithms that we don't understand. With biotechnology, we could manipulate the very building blocks of life, potentially creating unintended consequences for both individuals and entire ecosystem.
- (B) With biotechnology, we could engineer life to tackle diseases and transform agriculture, creating a world that is healthier and more sustainable. But on the other hand, the potential dangers of these technologies are equally vast and profound.
- (C) On the one hand, the potential benefits of these technologies are vast and profound. With AI, we could unlock the secrets of the universe, cure diseases that have long eluded us and create new forms of art and culture that stretch the bounds of imagination.

* daunt 겁먹게(기죽게) 하다.

** elude (사물이)~에게 이해되지 않다.

-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문 2】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ntroversy over new art-making technologies is nothing new. Many painters recoiled at the invention of the camera, which they saw as a debasement of human artistry. Charles Baudelaire, the 19th-century French poet and art critic, called photography “art’s most mortal enemy.” In the 20th century, digital editing tools and computer-assisted design programs were similarly dismissed by purists for requiring too little skill of their human collaborators. What makes the new breed of A.I. image generating tools different is not just that they’re capable of producing beautiful works of art with minimal effort. It’s how they work. These tools are built by scraping millions of images from the open web, then teaching algorithms to recognize patterns and relationships in those images and generate new ones in the same style. That means that artists who upload their works to the internet may be unwittingly _____.

* unwittingly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 ① helping to train their algorithmic competitors
 ② sparking a debate over the ethics of A.I. generated

【문 3】Duke Kahanamoku에 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Duke Kahanamoku, born August 26, 1890, near Waikiki, Hawaii, was a Hawaiian surfer and swimmer who won three Olympic gold medals for the United States and who for several years was considered the greatest freestyle swimmer in the world. He was perhaps most widely known for developing the flutter kick, which largely replaces the scissors kick. Kahanamoku set three universally recognized world records in the 100-yard freestyle between July 5, 1913, and September 5, 1917. In the 100-yard freestyle Kahanamoku was U.S. indoor champion in 1913, and outdoor titleholder in 1916-17 and 1920. At the Olympic Games in Stockholm in 1912, he won the 100-metre freestyle event, and he repeated that triumph at the 1920 Olympics in Antwerp, Belgium, where he also was a member of the victorious U.S. team in the 800-metre relay race. Kahanamoku also excelled at surfing, and he became viewed as one of the icons of the sport. Intermittently from the mid-1920s, Kahanamoku was a motion-picture actor. From 1932 to 1961 he was sheriff of the city and county of Honolulu. He served in the salaried office of official greeter of famous personages for the state of Hawaii from 1961 until his death.

* intermittently 간헐적으로 ** sheriff 보안관

- ① 하와이 출신의 서퍼이자 수영 선수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② 그는 플러터 킥을 대체하는 시저스 킥을 개발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③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의 800미터 계주에서 우승한 미국 팀의 일원이었다.
 ④ 그는 1920년대 중반부터 간헐적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했다.

【문 4】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understandings that children bring to the classroom can already be quite powerful in the early grades. For example, some children have been found to hold onto their preconception of a flat earth by imagining a round earth to be shaped like a pancake. This construction of a new understanding is guided by a model of the earth that helps the child explain how people can stand or walk on its surface. Many young children have trouble giving up the notion that one-eighth is greater than one-fourth, because 8 is more than 4. If children were blank slates, just telling them that the earth is round or that one-fourth is greater than one-eighth would be _____. But since they already have ideas about the earth and about numbers, those ideas must be directly addressed in order to transform or expand them.

- ① familiar
 ② adequate

【문 5】Urban farming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Urban farming, also known as urban agriculture, involves growing food within city environments, utilizing spaces like rooftops, abandoned buildings, and community gardens. This sustainable practice is gaining traction in cities across the world, including New York, Chicago, San Francisco, London, Amsterdam, and Berlin, as well as in many African and Asian cities where it plays a crucial role in food supply and local economies. Urban farming not only helps reduce carbon footprints by minimizing transport emissions but also increases access to fresh, healthy food in urban areas. It bolsters local economies by creating jobs and keeping profits within the community. Additionally, urban farms enhance cityscapes, improve air quality, conserve water, provide educational opportunities, promote biodiversity, connect people with nature, and improve food security by producing food locally, making cities more resilient to disruptions like natural disasters.

* traction 흡입력, 견인력 ** bolster 강화시키다

- ① 옥상, 버려진 건물, 그리고 공동체 정원과 같은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환경 내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다.
- ② 지속 가능한 관행으로 식량 공급과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의 도시들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③ 운송 배출을 최소화하여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 ④ 생물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식량을 생산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나, 자연 재해와 같은 혼란에 대한 도시의 회복력은 약화시킨다.

【문 6】밑줄 친 “unfinished animal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deas or theories about human nature have a unique place in the sciences. We don't have to worry that the cosmos will be changed by our theories about the cosmos. The planets really don't care what we think or how we theorize about them. But we do have to worry that human nature will be changed by our theories of human nature. Forty years ago, the distinguished anthropologist said that human beings are “unfinished animals.” What he meant is that it is human nature to have a human nature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the society that surrounds us. That human nature is more created than discovered. We “design” human nature, by designing the institutions within which people live. So we must ask ourselves just what kind of a human nature we want to help design.

- ① stuck in an incomplete stage of development
- ② shaped by society rather than fixed by biology
- ③ uniquely free from environmental context

【문 7】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Passive House is a standard and an advanced method of designing buildings using the precision of building physics to ensure comfortable conditions and to deeply reduce energy costs. It removes all guesswork from the design process. It does what national building regulations have tried to do. Passive House methods don't affect “buildability”, yet they close the gap between design and performance and deliver a much higher standard of comfort and efficiency than government regulations, with all their good intentions, have managed to achieve. When we use Passive House methods, we learn how to use insulation and freely available daylight, in the most sensible way and in the right amounts for both comfort and energy efficiency. This is, I believe, fundamental to good design, and is the next step we have to make in the evolution of our dwellings and places of work. The improvements that are within our grasp are potentially transformative for mankind and the planet.



Passive House utilizes precise building physics to ensure comfort and energy efficiency, (A) traditional regulations and offering transformative potential for (B) design.

- | | (A) | (B) |
|---|------------|---------------|
| ① | persisting | sustainable |
| ② | persisting | unsustainable |
| ③ | surpassing | unsustainable |
| ④ | surpassing | sustainable |

【문 8】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 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Today, there is only one species of humans, Homo sapiens, left in the world. But that one specie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over 99.9 percent genetically ① identical, has adapted itself to a wide array of disparate environments. And while some degree of human genetic variation results from each society's adaptation to its own unique environment, the cultural adaptations that each society makes in so adjusting itself will, in their turn, exact some further degree of ② variation on that society's genetic makeup. In other words, we are so entangled with our local ecologies that not only do we humans ③ transform the environment as we cull from it the various resources upon which we come to depend but also the environment, which we have so transformed, transforms us in its turn: at times exerting upon us profound biological pressures. In those regions of the world, for example, where our environmental exploitation has included the domestication of cattle-northern Europe, for instance, or East African human populations have ④ reduced adult lactose tolerance: the ability to digest milk past infancy.

【문 9】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Briefly consider a metaphor tha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how we live our daily lives: Time Is Money.

- (A) We often speak of time as if it were money—for example, in everyday expressions such as “You’re wasting my time,” “This device will save you hours of work,” “How will you spend your weekend?” and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this relationship.”
- (B) Every metaphor brokers what is made visible or invisible; this one highlights how time is like money and obscures ways it is not. Time thus becomes something that we can waste or lose, and something that diminishes as we grow older. It is abstracted in a very linear, orderly fashion.
- (C) This metaphor, however, fails to disclose important phenomenological aspects of time, such as how it may speed up or slow down, depending on our engagement with what we are doing. We may instead conceive of time as quite fluid—as a stream, for example—thought we lose sight of this to the extent that we have adopted the worldview of Time Is Money.

* obscure 모호하게 하다

- ① (A) - (B) - (C)
 ② (A) - (C) - (B)
 ③ (B) - (A) - (C)
 ④ (C) - (B) - (A)

【문10】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His last thought were for his wife. “He is afraid she would ① hardly be able to bear it,” he said to Burnet, the bishop who was allowed to be with him the last few days. Tears came into his eyes when he spoke of her. The last day came, and Lady Russell brought the three little children to say good-bye for ever to their father. “Little Fubs” was only nine, her sister Catherine seven, and the baby three years old, too young to realize his loss. He kissed them all ② calmly, and sent them away. His wife stayed and they ate their last meal together. Then they kissed in silence, and silently she left him. When she had gone, Lord Russel broke down completely. “Oh, what a blessing she has been to me!” he cried. “It is a great comfort to me to leave my children in such a mother’s care; she has promised me to take care of ③ her for their sake; she will do it,” he added resolutely. Lady Russell returned heavy-hearted to the sad home ④ to which she would never welcome him again. On July 21st, 1683, she was a widow, and her children fatherless. They left their dreary London house, and went to an old abbey in the country.

* bishop 주교(성직자)

【문11】The gig economy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gig economy, referring to the workforce of people engaged in freelance and side-hustle work, is growing rapidly in the United States, with 36% of employed participants in a 2022 McKinsey survey identifying as independent workers, up from 27% in 2016. This workforce includes a wide range of jobs from highly-paid professionals like lawyers to lower-earning roles like delivery drivers. Despite the flexibility and autonomy it offers, most independent workers desire more stable employment: 62% prefer permanent positions due to concerns over job security and benefits. The challenges faced by gig workers include limited access to healthcare, housing, and other basic needs, with a significant reliance on government assistance. Technological advancements have facilitated the rise in independent work, making remote and freelance jobs more accessible and appealing. The trend reflects broader economic pressures such as inflation and job market dynamics, influencing individuals to choose gig work for survival, flexibility, or enjoyment.

* side-hustle work 부업

- ① 조사에 참가한 사람들 중 독립 근로자의 비율이 2016년의 27%에서 36%까지 상승하였다.
- ② 대부분의 독립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고용보다는 직업이 제공하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선호하고 있다.
- ③ 근로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는 의료, 주거 및 기타 기본 요구 사항에 대한 제한된 접근성이 포함된다.
- ④ 기술 발전은 독립 근로의 증가를 촉진하여 원격 및 프리랜서 일자리를 접근하기 쉽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문12】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come to know and relate to the world by way of categories.

- (A) The notion of an animal species, for instance, might in one setting best be thought of as described by folklore and myth, in another as a detailed legal construct, and in another as a system of scientific classification.
- (B) Ordinary communication is the most immediate expression of this faculty. We refer to things through sounds and words, and we attach ideas to them that we call concepts.
- (C) Some of our categories remain tacit; others are explicitly governed by custom, law, politics, or science. The application of category systems for the same things varies by context and in use.

* tacit 암묵적인, 무언의

- ① (B) - (A) - (C)
 ② (B) - (C) - (A)
 ③ (C) - (A) - (B)
 ④ (C) - (B) - (A)

【문13】다음 글에 나타난 화자의 심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s three in the morning, and we are making our way from southern to northern Utah, when the weather changes from the dry chill of the desert to the freezing gales of an alpine winter. Ice claims the road. Snowflakes flick against the windshield like tiny insects, a few at first, then so many the road disappears. We push forward into the heart of the storm. The van skids and jerks. The wind is furious, the view out the window pure white. Richard pulls over. He says we can't go any further. Dad takes the wheel, Richard moves to the passenger seat, and Mother lies next to me and Audrey on the mattress. Dad pulls onto the highway and accelerates, rapidly, as if to make a point, until he has doubled Richard's speed. "Shouldn't we drive slower?" Mother asks. Dad grins. "I'm not driving faster than our angels can fly." The van is still accelerating. To fifty, then to sixty. Richard sits tensely, his hand clutching the armrest, his knuckles bleaching each time the tires slip. Mother lies on her side, her face next to mine, taking small sips of air each time the van fishtails, then holding her breath as Dad corrects and it snakes back into the lane. She is so rigid, I think she might shatter. My body tenses with hers; together we brace a hundred times for impact.

* gale 강풍, 돌풍 ** skid 미끄러지다 *** jerk 핵 움직이다 **** fishtail(차량)뒷부분이 좌우로 미끄러지다

- ① excited and thrilled
- ② anxious and fearful
- ③ cautious but settled
- ④ comfortable and relaxed

【문14】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owever, there are now a lot of issues with the current application of unmanned distribution.

The city lockdown policy during COVID-19 has facilitated the rapid growth of numerous takeaways, vegetable shopping, community group buying, and other businesses. (①) Last-mile delivery became an important livelihood support during the epidemic. (②) At the same time, as viruses can be transmitted through aerosols, the need for contactless delivery for last-mile delivery has gradually increased, thus accelerating the use of unmanned logistics to some extent. (③) For example, the community space is not suitable for the operation of unmanned delivery facilities due to the lack of supporting logistics infrastructure. (④) In addition, the current technology is unable to complete the delivery process and requires the collaboration of relevant space as well as personnel to help dock unmanned delivery nodes.

* last-mile delivery 최종 단계의 배송

【문15】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People are too seldom interested in having a genuine exchange of points of view where a desire to understand takes precedence over the desire to convince at any price.

- (A) Yet conflict isn't just an unpopular source of pressure to act. There's also a lot of energy inherent to it, which can be harnessed to create positive change, or, in other words, improvements, with the help of a skillful approach. Basically, today's misery is the starting shot in the race towards a better future.
- (B) A deviating opinion is quickly accompanied by devaluation, denigration, insults, or even physical confrontations. If you look at the "discussions" taking place on social media networks, you don't even have to look to such hot potatoes as the refugee crisis or terrorism to see a clear degradation in the way people exchange opinions.
- (C) You probably know this from your own experience, too, when you have succeeded in finding a constructive solution to a conflict and, at the end of an arduous clarification process, realize that the successful outcome has been worth all the effort.

* denigration 명예훼손 ** arduous 몹시 힘든 고된

- ① (B) - (A) - (C)
- ② (B) - (C) - (A)
- ③ (C) - (A) - (B)
- ④ (C) - (B) - (A)

【문16】다음 중 Belus Smawley에 대한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Belus Smawley grew up on a farm with his parents and six siblings. In his freshman years, he was tall and able to jump higher than any other boy, trying to improve his leaping ability by touching higher and higher limbs of the oak tree on their farm. This is where his first jump shot attempt is said to have taken place. When Belus Smawley started using his shot regularly, he became the leading scorer. At the age of 18, he got accepted for a position on an AAU18 basketball team. He finished high school afterwards and got an All-American athletic scholarship for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majoring in history and physical education). He became player-coach until he went to the Navy. He started playing in their basketball team and refined his jump shot. He got married and either worked as a high school teacher and basketball coach or further pursued his NBA basketball career playing fulltime for several teams. Eventually he focused on family and his teaching career, becoming the principal of a junior high school.

- ① 부모님과 여섯 형제와 함께 농장에서 자랐다.
- ② 나무의 더 높은 가지를 만지면서 점프 연습을 하였다.
- ③ 애팔래치아 주립대학교에서 전미 체육 장학금을 받았다.

【문17】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It might be understandable, then, for us to want to expect something similar from our machines: to know not only what they think they see but where, in particular, they are looking.

Humans, relative to most other species, have distinctly large and visible sclera—the whites of our eyes—and as a result we are uniquely exposed in how we direct our attention, or at the very least, our gaze. (①) Evolutionary biologists have argued, via the “cooperative eye hypothesis,” that this must be a feature, not a bug: that it must point to the fact that cooperation has been uncommonly important in our survival as a species, to the point that the benefits of shared attention outweigh the loss of a certain degree of privacy or discretion. (②) This idea in machine learning goes by the name of “saliency”: the idea is that if a system is looking at an image and assigning it to some category, then presumably some parts of the image were more important or more influential than others in making that determination. (③) If we could see a kind of “heat map” that highlighted these critical portions of the image, we might obtain some crucial diagnostic information that we could use as a kind of sanity check to make sure the system is behaving the way we think it should be. (④)

* sclera (눈의)공막 ** outweigh 보다 더 크다
*** discretion 신중함 **** saliency 특징, 중요점

【문18】다음 (A), (B), (C) 중, 어법상 옳은 것끼리 고른 것은?

The climate of the irrigated plains can be glimpsed in the murals. The summer sun beats down on the hard ground, and the king himself is shaded by a large umbrella. War, often present, is also carved in vivid detail. In or about 878 BC, three men are depicted (A)(fleeing / fled) from a city which has probably been captured. Dressed in long robes, they jump into the Euphrates River (B)(which / where) one is swimming while the others hug a lifebuoy to their chests. Like a long pillow, the lifebuoy consists of the skin of an animal, inflated with air. As the hands of the refugees (C)(is / are) clutching the inflated lifebuoy, and as much of their breath is expended in blowing air into it, they can only stay afloat by swimming with their legs. Whether they reached the opposite shore will never be known.

- | (A) | (B) | (C) |
|-----------|-------|-----|
| ① fleeing | which | is |
| ② fleeing | where | are |
| ③ fled | which | is |
| ④ fled | where | are |

【문19】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When the Dutch arrived in the 17th century in what's now New York City, their encounters with the indigenous peoples, known as the Lenape, were, at first, mostly amicabl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y shared the land and traded guns, beads and wool for beaver furs. The Dutch even “purchased” Manahatta island from the Lenape in 1626. The transaction, enforced by the eventual building of wall around New Amsterdam, marked the very beginning of the Lenape's forced mass migration out of their homeland. The wall, which started showing up on maps in the 1660s, was built to keep out the Native Americans and the British. It eventually became Wall Street, and Manahatta became Manhattan, where part of the Lenape trade route, known as Wickquasgeck, became Brede weg, later Broadway. The Lenape helped shape the geography of modern-day New York City, but other traces of their legacy have all but vanished.

- ① 네덜란드인과 르나페 원주민들은 총과 동물의 털을 교환하는 무역을 했다.
- ② 이후에 월스트리트가 된 지역에 지어진 벽은 르나페 원주민이 영국인을 막기 위해 세웠다.
- ③ 르나페 원주민의 무역로의 일부가 나중에 브로드웨이가 되었다.
- ④ 르나페 원주민은 현대 뉴욕시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문20】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틀린 것은?

Today, we take for granted that the media and the celebrity culture it sustains have created new forms of publicness, ① through which we might have intimate relationships with people we have never met. Thanks to media technologies we ② are brought ever closer to the famous, allowing us to enjoy an illusion of intimacy with them. To a greater or lesser degree, we have internalized celebrities, unconsciously made them a part of our consciousness, just ③ as if they were, in fact, friends. Celebrities take up permanent residence in our inner lives as well, ④ become central to our reveries and fantasies, guides to action, to ambition. Now, indeed, celebrity culture can be permanently insinuated into our sensibilities, as many of us carry them, their traits, and our relationships with them around as part of our mental luggage.

* reverie 몽상 ** insinuate 암시하다, 일부가 되다

【문21】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estivals are significant cultural events that showcase tradition, heritage and community spirit globally. They serve as platforms to celebrate diversity, with each festival reflecting unique traditions like Brazil's Carnival or India's Diwali. Festivals also commemorate historical moments, such as Independence Day in the US or Bastille Day in France. Additionally, they preserve customs and rituals that strengthen personal and cultural identity, while fostering strong community ties through shared activities. Festivals reflect societal values, promote local crafts and arts, enhance spirituality, and attract tourism, which facilitates cultural exchange and understanding. Seasonal festivals, like Holi in India, align with natural cycles, celebrating times of renewal. Ultimately, participating in festivals reinforces community and individual identity, contributing to a global narrative that

* commemorate 기념하다

- ① makes the participants forget their daily concerns and pains
- ② values diversity and encourages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 ③ allows people to break the link between personal life and social life
- ④ keeps the festivals from determining how people think about themselves

【문22】밑줄 친 you've been thrown a curve ball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Life is full of its ups and downs. One day, you may feel like you have it all figured out. Then, in a moment's notice, you've been thrown a curve ball. You're not alone in these feelings. Everyone has to face their own set of challenges. Learning how to overcome challenges will help you stay centered and remain calm under pressure. Everyone has their own preferences for how to face a challenge in life. However, there are a few good tips and tricks to follow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re's no need to feel ashamed for asking for help. Whether you choose to rely on a loved one, a stranger, a mentor, or a friend,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help you succeed. You have to be open and willing to accept support. People who come to your aid truly do care about you. Be open to receiving help when you need it.

- 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 ② 흥미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다.
- ③ 대안적인 방법을 적용하게 되다.
- ④ 정면 승부를 피하여 에둘러 가다.

【문23】다음 중 글에 설명된 사회적 지배력과 번식 성공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은?

Social dominance refers to situations in which an individual or a group controls or dictates others' behavior primarily in competitive situations. Generally, an individual or group is said to be dominant when "a prediction is being made about the course of future interactions or the outcome of competitive situations". Criteria for assessing and assigning dominance relationships can vary from one situation to another. It is difficult to summarize available data briefly, but generally it has been found that dominant individuals, when compared to subordinate individuals, often have more freedom of movement, have priority of access to food, gain higher-quality resting spots, enjoy favorable grooming relationships, occupy more protected parts of a group, obtain higher-quality mates, command and regulate the attention of other group members, and show greater resistance to stress and disease. Despite assertions that suggest otherwise, it really is not clear how powerful the relationship is between an individual's dominance status and its lifetime reproductive success.

* dominance 지배, 우세

- ① 하위 개체에 비해 모든 지배적인 개체는 평생 동안 높은 번식 성공률을 보인다.
- ② 개체의 우세 상태와 평생 번식 성공 사이의 관계는 다면적이며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사회적 지배력을 갖춘 존재는 음식 및 짝과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해 번식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 ④ 하위 개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평생 번식 성공률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문24】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mindfulness meditation is generally safe, concerns arise from its side effects like panic attacks and psychosis, which are seldom reported and poorly understood in academic studies. Critics argue the rapid adoption of mindfulness by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systems may inappropriately shift societal issues to individuals, suggesting that personal stress is due to a lack of meditation rather than addressing systemic causes like environmental pollution or workplace demands. Critics like Professor Ronald Purser suggest that mindfulness may make individuals more compliant with adverse conditions instead of empowering them to seek change. Despite these concerns, the critique isn't against mindfulness itself but against its promotion as a universal solution by entities resistant to change. For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mindfulness' benefits and risks, long-term and rigorously controlled studies are essential.

* psychosis 정신 질환 ** compliant 순응하는

- ① the criticism regarding the safety and societal implications of the widespread adoption of mindfulness meditation
- ② the social and national measures which are taken to relieve personal stress and prevent social and cultural confusion
- ③ the basic elements of mindfulness that must precede the resolution of social problems rather than individual problems
- ④ the disadvantages that individuals and societies face due to the meditation performed improperly and the lack of meditation

【문25】Mike Mansfield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man of few words and great modesty, Mike Mansfield often said he did not want to be remembered. Yet, his fascinating life story and enormous contributions are an inspiration for all who follow. Mike Mansfield was born in New York City on March 16, 1903. Following his mother's death when Mike was 7, his father sent him and his two sisters to Great Falls, Montana, to be raised by an aunt and uncle there. At 14, he lied about his age in order to enlist in the U.S. Navy for the duration of World War I. Later, he served in the Army and the Marines, which sent him to the Philippines and China, awakening a lifelong interest in Asia. Mike Mansfield's political career was launched in 1942 when he was elected to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e served five terms from Montana's 1st District. In 1952, he was elected to the U.S. Senate and re-elected in 1958, 1964 and 1970. His selection as Democratic Assistant Majority Leader was followed by election in 1961 as Senate Majority Leader. He served in that capacity until his retirement from the Senate in 1977, longer than any other Majority Leader in history.

* House of Representatives 하원 ** Senate 상원
*** Majority Leader 다수당 원내대표

- ① 말수가 적고 겸손했으며 자신이 기억되지 않기를 원했었다.
- ② 모친이 사망한 이후 친인척의 보살핌을 받았다.
- ③ 군 복무 중 아시아 파병을 계기로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 ④ 상원의원에 5번 당선되었으며 가장 긴 다수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